

<p>민 지 실</p> <p>음 혜 천</p>	<h1>BUDDHANARA</h1>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시 :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및 새로운 찬불가 배우기
 셋째주 일요일 11시 : 전법기도 법회 및 새로운 찬불가 배우기
 넷째주 일요일 10시 30분: 백중 (우란분절) 및 업장 소멸 천도제사
 매주 둘째주 화요일 5시 : 어린이 참선 법회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오전 11시 - 오후 1시
 Pinckneyvill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5

새벽기도: 아침 6시 30분 - 7시 (아침예불 및 참선)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사찰에서 아침공양을 제공 합니다.)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우리 육체
 파도의 거품 같고,
 신기루 그림자 같다는 것 아는 사람,
 죽음의 왕도 보지 못한
 육욕과 번뇌 속에 숨어 있는
 날카로운 화살 꺾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네.

He who knows that this body is the foam of a
 wave, the shadow of a mirage, he breaks the
 sharp arrows of MARA, concealed in the
 flowers of sensuous passions and unseen by
 the king of death, he goes on and follows his
 path.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0 년은 부처님 말씀 을 이웃들 에게 전하 는 “전법 의 해” 가 되도록 힘 씁니다.

효(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똑같은 물을 부처님이 마시면 우유 가 되고 탐욕에 찬 이가 마시면 모 진 불로 변해서 창자를 태워 없애리 라. 효도의 경으로 알려진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목련경(目連經)> <우란분경(盂蘭盆經)> 중에서 <부모은중경>은 부모님의 은혜가 심중(深重)함과 부모님의 은혜 갚는 방법을 가르치고, <목련경>과 <우란분경>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천도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또 선망영가를 천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방면에서 해석하더라도 천도재를 올리는 사람이 그 효과를 본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고 어떻게 천도해서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은 다 같이 범어 원본이 없다. 또 그 자체 내용으로 보아도 인도에서 이루어진 원본 그대로 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아마도 인도에서 이루어진 경전이 중국에 들어와서 가필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부모은중경>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포되었다. 조선조 때부터 한글언해본만 해도 여러 가지가 되며 특히 정조대왕은 부모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한문과 순 한글을 같이 넣고 김홍도의 그림까지 곁들인 <부모은중경>을 간행하기도 했다. 이 경판은 용주사에 보관되어 있고 시종에는 이 판본의 현대어 번역이 나와 있기도 하다.

<우란분경>은 두 번 한문으로 번역되었지만 현재는 축법호의 번역으로 되어 있는 <불설우란분경(佛說盂蘭盆經)>만이 남아 있다. <목련경>은 <우란분경>의 내용을 좀더 각색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부모은중경>은 부처님이 아난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마른 뼈 무더기에 절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이 마른 뼈 무더기를 향해 오체투지로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아난이 부처님께 여쭙는다. 부처님께서서는 하늘과 인간세계의 스승이시고 자비로운 아버지인데 어째서 마른 뼈에 예배하십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신다. 네가 비록 나의 뛰어난 제자이고 출가한 지도 오래 되었지만 아직 널리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 무더기의 뼈가 혹시 나의 전생, 오랜 조상이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이니라. 다겁생래로 윤회를 하면서 누구나 부모자식, 형제자매의 인연 경험이 있을 수가 있다. 여기서 부처님은 마른 뼈에 절할 함으로 써 조상에 대한 숭배의 마음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은 다생부모의 열 가지 은혜를 열거하신다.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를 알고 있다. 그 노래의 가사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특별히 간절한 것만 몇가지 보도록 하자 부모님 은혜 가운데 하나는 자식을 위해서 나쁜 업도 짓는다는 것이다. 요즘 부패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많은 이들이 자식들의 대학 부정입학이나 군대기피 등의 이유 때문에 신문방송에 의해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 부정 부패야 당연히 근절해야 하겠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죄까지도 짓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또 용주사판 삼화를 보면 80 세 된 할머니가 60 세 된 아들을 보살피는 것이 나온다. 부모님 은 이처럼 목숨을 마칠 때까지 자식을 걱정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가 어려운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하신다. 가령, 어떤 이가 왼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모신 다음 살갓이 닳아져 뼈가 드러나고 뼈가 닳아져서 골수에 미치도록 온 세계를 다니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하셨다. 또, 어떤 이가 부모님을 위해서 칼로 심장과 간을 베어서 피가 흘러 땅을 적실지라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고통을 참으면서 백천겁을 지날지라도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다고 하셨다. 이 같은 예를 부처님은 여러 가지 들어 주신다. 이어서 부처님은 은혜를 갚는 길을 일러주신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전을 펴내라. 이것이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느니라. 경전 한 권을 펴 내면 한 부처님을 뵈옵는 것이요, 백 권을 펴 내면 백 부처님을 뵈옵는 것이니라. 이렇게 경을 펴낸 공덕으로 부처님들이 옹호해 주시는 까닭에 부모님이 천상에 태어나서 모든 괴로움을 여월 수가 있느니라.

각 경마다 그 경을 유포하기 위해서 경을 수지, 독송, 해설하는 것을 찬탄하지만 여기서의 경전발행공덕은 단순히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 공공이 생각해 볼 때 은혜를 갚는 첫걸음은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갚기 어려운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면 <부모은중경>을 읽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경의 간행공덕이 크다고 말하는 것이다.

<목련경>은 신심이 없는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아들인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를 구하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목련존자의 속가 이름은 나복이며 목련존자의 부모는 지역의 대부호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사를 치른 아들은 어머니 청제부인에게 자주 스님네를 모셔다 공양대접을 하라고 부탁하고 타국으로 가서 오랫동안 머물며 돈을 벌며 돌아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보시하고 공양하는 공덕을 짓지 아니하고 나쁜 일만 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거짓말로 맹세를 했다. “나는 스님들에게 많은 공양을 올렸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7 일 이내에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그 말대로 나복의 어머니는 7 일이 못 가서 병에 걸려 죽었고 지옥에 떨어졌다.

나복은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목련이라는 불명을 받았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천상의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찾을 길이 없었다. 나중에서야 지옥에 있는 것을 알고 밥을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러나 지옥의 청제부인은 아직도 밥을 보고 탐하는 마음을 고치지 못해서 왼손으로는 밥을 쥐고 오른손으로는 다른 지옥 동료들을 막으면서 밥을 입 속에 넣으니 그 밥은 뜨거운 불로 변해 버렸다.

부처님이 목련존자에게 말씀하신다.

모든 부처님들이 물을 마시면 그것은 마치 우유와 같고, 스님들이 물을 마시면 단 이슬과 같느니라. 선을 행한 사람 이 물을 마시면 능히 목마름을 면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의 어머니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뱃속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모진 불로 변해서 창자를 태워 없애고 말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뜻이 들어 있다. 똑같이 목마른 상황에서 간신히 얻은 물을 마실 경우에 부처님이 마신 결과와 탐욕에 혈떡이는 사람이 마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마음이 짐이 물의 가치와 효과를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탐심이 많은 사람이 물을 마실 때에는 물로 목을 축이려고 하기 보다는 많은 물을 확보해 두려고 한다. 그러니 입으로 마시는 물로는 양이 차지 않으며 마시는 물은 그 탐욕자의 갈증을 식히지 못한다. 오히려 갈증만 더 나게 만들 것이다. 물이 불로 변하는 것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양의 물을 부처님이 마실 경우, 부처님은 그때 필요한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많은 물을 확보할 욕심이 없으며 그 물은 우유맛이 되어서 모든 갈증을 멈추게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유처럼 영양분을 만들어 주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목련경>은 지옥에 빠진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을 묘사하는 가운데 불교의 일체 유심조 도리를 교묘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밥과 물이 그것들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발휘한다면 지옥이 나 극락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공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마음공부가 된 사람에게는 지옥도 극락이 될 것이고 탐착(貪着)에 빠진 이에게는 극락도 지옥으로 변해 버릴 것이다.

<우란분경>은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극락으로 끌어 올리는 방법을 상징적으로 보이고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네 어머니는 죄업이 깊어서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느니라. 네가 효성이 지극해서 천지를 감동시킬 만하여도 어떤 하늘의 힘으로도 너의 어머니를 구할 수가 없느니라. 스님네들의 공부한 힘을 얻어야 하느니라. 목련아, 칠월 보름날은 시방에 있는 스님네들이 여름 안거를 마치고 제각기의 허물이나 남의 잘못을 마음대로 말하는 날이니라. 이날에는 죽은 7대 부모나 현재 살아 있는 부모를 위하여 그 스님들의 공부 힘으로 액난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칠월 보름날 재를 베풀고 스님네께 공양을 올리도록 하거라.

부처님은 지옥으로부터 목련의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힘은 3개월 동안 스님들의 공부가 끝나는 여름안거 해제일인 칠월 보름에 공부한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공덕에서 얻어진다고 하셨다. 마음 깨치는 공부가 바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이다. 똑같은 물을 미혹한 지옥중생이 마시면 불이 되고 부처님이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

-BBS 불교방송-

제발 '나'라는 생각 좀 비우라: 너무 버거운 자기연민의 무게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는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사막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약용식물을 연구하는 인류학 학자입니다. 어느 날 그는 국경 가까운 곳에서 약용식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나이 많은 인디언 남자 돈 후안 마투스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인류학도인 카스타네다는 돈 후안의 제자가 되어 병을 고치는 무당인 브루호의 세계에 입문한 뒤, 이때 체험한 신비로운 경지에 대한 책을 펴냅니다. 하지만 그가 인디언 노인에게서 배운 것은 약용식물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자꾸만 식물에게 말을 건네라고 중용합니다. 얼핏 보아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들풀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 시각으로는 식물에 들어 있는 생명을 고치는 신비한 효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에게 자꾸만 식물에게 말을 건네라고 일러준 이면에는 공평하고 무심한 하늘 아래 식물들도 인간과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직접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나는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한 나머지 쉽게 상처를 입고 맙니다. 타인의 말 한 마디에 가슴이 할퀴어지는 상처를 입고, 흘깃 쳐다보는 타인의 빼박한 시선 한 줄기에도 무참해지고 맙니다.

세상은 거칠기 짝이 없고, 기세등등한 타인들 속에서 나란 존재는 얼마나 가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칭찬과 비난, 명예와 폄훼 등등의 여덟 가지 바람이 이리저리 불어오면 소중한 나는 너털너털해지고, 내 자신을 소중하다고 생각한 꼭 그만큼의 깊은 절망의 늪으로 떨어져 두 번 다시 세상의 밝은 광장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사는 의미를 잃어버려서 세상과 통하는 문을 닫습니다. 심한 경우 스스로 파국을 불러들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게 세상이고, 이런 게 인생인데, 그런 줄 몰랐을까요? 세상에는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이 생명체 숫자만큼이나 가득하고, 나는 그런 중생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내가 남들에게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겨지며 대접을 받아야 할 나만의 특별한 이유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요?

인디언 노인 돈 후안은 젊은 제자 카스타네다를 살펴본 결과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연민에 쉽게 빠져버리는지를 가차 없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개인사는 쓰레기'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게 되는 마음의 상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나는 상처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입게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자기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넓디넓은 우주 속에서는 하루살이도 나름대로는 찬란한 개인사를 지닌 생명체라는 사실은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연민의 무게를 좀 덜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무기력해지고 권태에 빠지며 매일 매일이 그저 똑같은 일상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평만 일삼는, 정말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 돈 후안의 지적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이유는 내가 세상과 연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구비 구비를 돌 때마다 모퉁이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 걸림돌이라는 게 바로 소중한 '나'이지만, 제발 그 '나'라는 생각 좀 비워버리라는 것입니다. 황량한 벌판에서 보물 상자를 만났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놀라 도망친 남자, 화려한 명성을 거머쥐었지만 끝내 스스로 생명의 불꽃을 꺼버린 유명인사들... 인생의 모퉁이에서 맞닥뜨려진 '나'를 극복하지 못한 안타까운 이들입니다.

- 위의 내용은 <내 인생의 탐나는 영혼의 책 50>(툼 버틀러 보던 지음/오강남 옮김/흐름출판)을 참조했습니다.

- 이미령 [불교신문 2641 호/ 7 월 21 일자] 에서 발췌 -

사십구제의 유래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 비교하여 진리를 설명하는 교리도 풍부하지만 의식도 풍부하다. 의식의 종류를 몇 가지 들어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 의식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불공 의식, 부처님께 기도 드리는 기도 의식, 그리고 승려와 신자들이 계(戒)를 받는 수계의식, 종교적으로 영혼을 천도하는 천도 의식 등이 있다. 이제 쓰고자 하는 사십구제의식은 천도 의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중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의식인 것이다. 천도 의식의 종류는 사람이 죽을 때 바로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이 있고, 죽은지 일주일만에 지내주는 초칠일제(初七日祭)가 있고 이주일이 되면 지내주는 삼칠일제, 사칠일제 ...라고 한다. 이 가운데 최후의 칠칠일제(七七日祭)는 사망한지 사십 구일이 되는 천도제라는 뜻으로 사십구제(四十九祭)라고 한다. 이와같이 사십구제를 올려 주는 경우는 대부분 자손과 친척들이 지내 주는 것으로서 이때의 영혼을 유주고혼이라한다. 그러나 우주 공간에는 자손이 없거나 자손이 있어도 사망 일자를 모르는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영혼을 무주고혼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불교에서는 이들 무주고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천도하려는 목적으로 육지와 바다에서 천도식을 올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교의 자비심에서 비롯된 의식으로서 이를 수록제라고도 한다. 그런데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천도의식은 사십구제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망한 후 사십구일이 되면 최종적으로 내세의 과보를 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 천도 의식에 대한 학술적인 배경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불교의 윤회설은 원시 불교 시대에 이미 있었지만 이를 좀 더 이론화하고 조직, 체계화한것은 소승불교 시대라 볼 수 있다. 소승 불교의 대비바사론에 의하면 인간이 사망하여 내세에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학설이 분분하다. 어떤 학자는 사망하자마자 즉시 내세에 태어난다고 주장하였고, 어떤 학자는 사망 후 즉시 태어나지 않으면 일주일간 허공에 있다가 내세의 인연을 만나 태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망 후 일주일(初七日)이 되어도 내세의 과보를 결정하지 못하면 영혼이 상태에서 다시 죽음을 겪게 되고 또 일주일을 더 기다리다가 그래도 내세(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천국)의 과보를 결정할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죽음을 겪게 되며 또 다시 살아나서 삼주일째 내세를 기다리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되풀이 하여 4 주일, 5 주일 또는 6 주일과 7 주일과 사십 구일까지 기다렸다가 사십 구일이면 누구나 내세의 과보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또 이에 반대하여 일정하게 중유(中有)의 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유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부터 내세에 태어날 때 까지의 기간에 있는 영혼을 뜻하는 것으로 그 중유기간설은 설마달다라는 소승 학자가 주장한 49 일설이 가장 유력하였던 것이다. 이 49 일설이 그 후에 소승 불교의 최고의 논사인 세친보살에 의하여 저술되는 구사론에 나타나 있고 또 대승불교의 논서이며, 유식학의 근본 논전인 유가사지론에도 그대로 실려있다. 이와같이 대승론과 소승론에 49 일설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불자들은 거의 이 학설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밖에 경전으로는 지장경을 들 수 있다. 이 지장경은 영혼 천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신앙되고 있는 경전이다. 그런데 이 지장경의 이익존망품에 의하면 중생이 사망하면 즉시 내세의 과보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49 일 이내에는 내세의 과보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이승에 있는 친척들이 천도제를 지내주고 선과복을 닦으면 그 영혼은 천당과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도 복덕과 가호를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기록들은 현재 나타난 기록들로서 앞으로 더 연구하면 더 나타날는지 모르나 신라의 고승 둔운법사도 유가론기에 비바사론과 구사론 그리고 유가사지론의 49 일설만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상 잘 나타나지않을 것 같다. 아뭇든 위에서 살펴 본 논전과 경전의 기록에 의하여 천도 의식을 올리는 기일이 정해져 내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기록들에 의하여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 염불을 해주고 축원을 해주며 또 사망한 지 일주일이 되면 초칠일제를 지내준 것 같다. 그리고 이주일고 삼주일 내지 칠주일인 49 일까지 천도제를 올려주는 의식이 발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같은 천도제를 올리는 가운데에도 49 일제를 성대하게 지내주는 이유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유 기간의 영혼이 49 일이 되면 반드시 내세의 과보를 받게 된다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승에 있는 자손과 친척들로서는 극락 세계로 천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서 이날만은 특별히 천도 법회를 하고, 기도하며 축원을 올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천도 의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는 알 수 없으나 부처님 당시부터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그 후 중유 기간의 설정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보아 소승불교 시대 전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천도 의식을 올려주면 그 영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게 되는가?

이는 여러 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간단히 요약하여 보면 영혼에게는 이승에서 많은 죄업을 쌓았고 또 부모와 처자 그리고 이승에 두고온 재산과 같은 애착물이 많이 있다. 이러한 죄업과 번뇌 그리고 애착심은 지혜의 장애물로나타나 극락과 천국으로 가려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어 지옥으로 인도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염불과 독경의 내용은 이승의 애착을 없애주는 무상의 진리를 설해주고 평소 범했던 잘못된 번뇌심을 깨닫게 하여 주는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혼의 생각은 일단 업력으로 된 이승의 몸을 벗어났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여 즉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며, 곧 지혜를 나투어 올바른 길을 택해 갈 수 있는 혜안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영혼은 이승의 애착을 버리고 혼연히 지혜의 눈으로 저승의 선한 세계를 택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론에 의하면 영혼(중유)에게는 업력에 따라 보고 들을 수 있는 천안(天眼)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 천안과 빠른 생각은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보고 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불과 독경으로 진리롭게 바로 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뒷받침하여 천도제를 지내주며 사십구제를 올려주는 유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란분절 기도

칠월 보름 백중절 환한 달빛 속에
목련존자 지극한 효심 따라 천도의 정성 올리오니
먼저 가신 조상님 인로왕 보살님 따라
정도에 왕생하여 진정한 열반의 법열을 누리소서.

육도 윤회 중생들과 외롭게 떠도는 영가들이여,
탐, 진, 치 삼독의 어둠 벗어나
한 가닥 불심을 회복하소서.
해탈의 원적산을 어서 속히 오르소서

무명 세월 속에 한없이 지은 중생의 죄업을
두 손 모아 참회하오니,
지옥, 아귀, 축생의 가엾은 죄보 중생들
우란분절에 올리는 저희의 작은 정성
은 법계에 두루 회향하오니,
악한 세상 벗어나
감로의 청량 법문 모두 얻게 하소서.
무간 지옥에도 연꽃이 피어올라지이다.

양력 8월 24일 (음력 7월 15일)은 백중 (우란분절)입니다. 불국사에서는 양력 8월 넷째주 일요일인 8월 22일날 백중 (우란분절) 천도 제사를 올립니다.

우란분절 천도제는 출가자의 수행 공덕과 보시자의 공양 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중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전통 의식인 것입니다. 삶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사가 되어 널리 이웃에게도 선망조상 및 유주무주 고훈 영가천도의 귀중함을 권선 하시고 이웃과 함께 불사인연 나누시어 나와 내가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 그 인연 공덕으로 무량 복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부다나라(불국사)와 인연있는 모든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백중기도 동참비는 \$100.00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분은 일십만원 입니다.) 입니다만 경제 사정상 어려운신 신도님들은 회장님이나 총무님과 상의 하셔서 기도 동참비를 절충해 주십시오.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5월 28일 (음력 4월 15일) 부터 8월 24일 (음력 7월 15일) 약 3개월 동안 하얀거결계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부다나라 불자님들도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수행과 공부하는 마음으로 뜻깊게 여름 한 철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 8월 22일 넷째 주 일요일 10시 30분에 백중 천도 법회가 있습니다. 양력 8월 24일 (음력 7월 15일)은 백중 (우란분절)입니다. 부다나라 (불국사)에서는 양력 8월 넷째주 일요일인 8월 22일날 백중 (우란분절) 천도 제사를 올립니다. 이날 선망부보, 일가친척, 수자영가등 인연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봉행합니다. 우란분절에 보면 일년에 한번 백중날에 지옥문이 열린다 합니다. 우란분절을 기려 저희 불국사에서도 지극한 믿음으로 효도를 실천하고자 살아 계신 부모님과 돌아가신 조상·친족 및 유자령(流子靈:유산된 태아의 영혼)영가 및 지난 일년간 알게 모르게 원결을 짓게된 모든 짐승 및 벌레 영가들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천도기도를 올립니다.
우란분절 천도제는 출가자의 수행 공덕과 보시자의 공양 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증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전통 의식인 것입니다. 삶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사가 되어 널리 이웃에게도 선망조상 및 유주무주 고훈 영가천도의 귀중함을 권선 하시고 이웃과 함께 불사인연 나누시어 너와 내가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 그 인연 공덕으로 무량 복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부다나라(불국사)와 인연있는 모든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백중기도 동참비는 \$100.00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분은 일십만원 입니다.) 입니다만 경제 사정상 어려운 신도님들은 회장님이나 총무님과 상의 하셔서 기도 동참비를 절충해 주십시오.
- 애틀랜타는 부다나라 가 지원하고 있는 조지아텍 여래 (타다가타) 불교학생회가 7월 19일에 학교로부터 정식 불교 학생회 단체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부다나라와 여래 불교학생회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조지아 여래 불교 학생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조지아 공과대학 여래(타다가타) 불교 학생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 문수지 권효정 보살님께서 7월 14일 오전 10시경 향년 58세의 나이로 운명하셨습니다. 가족, 친지, 부다나라 불자들은 헤어짐의 눈물속에서도 죽음은 곧 또다른 시작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극락왕생하시길 빌면서 고인을 정말 편안히 그리고 장엄하게 보내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받기 어렵다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그것도 동시대에 같은 공간인 이곳 조지아에서 불교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률로써 따진다면 아마 수조분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소중한 인연이 이 생에서 다하고 다음 생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살님의 명복을 빌며 극락왕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7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201번 갑진생 김인수, 431번 병술생 박태임, 459번 병인생 조옥기, 460번 무진생 조정기, 461번 기사생 조훈기.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100,000: 망 자모 안동유인 문수지 권효정 영가 (행효자 진공 권순철 복위)

부처님 불사: 무인생 법화행 신경숙

한 평불사: 병술생 박태임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로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